

마음이 통하는
VOL. 2

길



마음이 통하는
VOL. 2

길



커버스토리
신(新)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가치

PEOPLE | 강원지방본부 평창지부 김진국 지부장
노동계 이슈 | 세계 각국의 정년연장 해법 소개
현장 24시 | 순천NSC 여수운용팀 문언주 조합원
길따라 멋따라 | 바다의 도시, 세계박람회의 도시 '여수'



미래를 위한 발전과 혁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이 움트는 계절,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과 마주칩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언 땅을 뚫고 새싹이 움트면 산천은 어느새 초록으로 물듭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오직 죽은 것만이 변화하지 않죠.
변할 수 있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시시각각 변화하죠.
변화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애플신화를 이끈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실천했던 것 역시, 변화와
혁신이었죠. 그는 안전이 보장된 관행과 습관적인 안주에서 벗어나,
혁신과 개혁을 통해 IT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나비는 고치를 뚫고 완전 탈바꿈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힘찬 울음을 울기 위해 매미는 탈피를 합니다.
거북이도 묵은 껍질을 벗는 탈피를 거치며 성장하죠.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은 때로 두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발전과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Contents Vol.2

04	KTTU News	22	현장 24시
08	오토 캠핑장 이용안내		– 순천NSC 여수운용팀 문언주 조합원
10	COVER STORY	26	길따라 멋따라
	– 신(新)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가치		– 바다의 도시, 세계박람회의 도시 ‘여수’
14	PEOPLE	30	전문가 칼럼
	– 강원지방본부 평창지부 김진국 지부장		– 미얀마의 봄은 시작되는가
18	그림과 대화하기	32	알아봅시다
	–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한 그림 치료법		– 산재 신청 관련 잘못된 상식
20	노동계 이슈	34	북멘토
	– 세계 각국의 정년연장 해법 소개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2년 6월 4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KTTU hot news

2012년 노사공동 장학증서 수여식

Ⅰ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YOUTH • UCC • IT-Master 대상 496명에 장학금 전달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19일(목) 오후 5시, 광화문 올레 스퀘어에서 'KT노사공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수여식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KT 노사 YOUTH 장학사업' 과 올해 처음 도입된 'UCC 장학사업' 그리고 1988년부터 시행해 온 'IT-Master 장학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고교생 및 대학생 496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열렸다. 수여식에는 졸업 때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201명의 고교생과, 등록금 및 대회참가비를 지원하는 IT관련 대학생 285명을 대표해 110명의 장학생이 참석하였으며,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과 조합간부, 이석재 KT 회장과 이상훈 사장 및 경영진 등이 함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노동조합과 KT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장학 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한 뒤, "KT노사는 어려운 여건에 계신 여러분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재 회장 또한 "우리 세대와 젊은 여러분의 현재는 다르다."면서 "이제 여러분은 세계를 상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마음껏 꿈을 향해 도전하고 개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소외계층을 도와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적과 가정환경을 면밀히 심사, 전국에서 선발된 고교생과 대학생 496명에게 수업료와 등록금 및 IT관련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9회 위원장기 조합간부축구대회 열려

Ⅰ 축구대회 전북지방본부 우승, 500m 계주 대구지방본부 우승, 줄다리기, 3년 연속 부산지방본부 우승

제9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가 500여 조합간부의 단결과 함성 속에 4월 26일(목)~27일(금)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26일 첫날 축구대회와 줄다리기 및 계주 등 본 경기를 치른 뒤, 27일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경품추첨과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이어졌다. 정윤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1대 집행부가 출범한 올해초부터 설새없이 달려왔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비용절감과 매출증대를 빌미로 조합원들의 고생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하며, "빠른시일 안에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조합간부 모두가 치열하게 하나되어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조합간부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했던 첫날 축구대회는 전북지방본부가 우승을 차지했고, 계주는 대구지방본부가, 줄다리기는 3년 연속 부산지방본부가 우승했다. 이튿날 노동조합은 규약 제4장 제3절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심의·의결한 뒤, 경품추첨과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KTTU



KTTU

KT trade union

4

5



KTTU



KT노동조합, 5월 1일 합동추모제 개최

Ⅰ 정윤모 위원장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자"

노동조합은 5월 1일(화) 11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합동추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창립일에 맞춰 추모제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노동자 투쟁의 날이면서 축제 의미가 있는 노동절인 5월1일에 맞춰 합동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본부위원장들과 조합간부, 그리고故 김낙성,故 김양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동지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열사들의 염원이었던 민주노조 사수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넘어 KT노동조합은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서 연대와 실천을 결의해야 한다"며 "우리모두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조합간부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섯 열사의 헌신적인 삶과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노조의 역사가 개척될 수 있었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KT노동조합이 더욱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다"며 "11대 집행부는 앞서간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노동조합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로 답사한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 김낙은 씨는 "언제나 잊지 않고 매년 추모제를 지켜주시는 KT노동조합에 감사를 드린다"며 "먼저 가신 그분들의 숭고한 큰 뜻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열사들의 신념과 용기를 본받아 새로운 오늘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합간부들과 유가족은 분향과 헌화를 모두 마치고 추모비 뒤편에 새겨진 열사들의 이름을 지켜보며 의미를 되새겼다.

어린이날 앞두고 '꿈을 키우는 스마트교실' 진행

Ⅰ KT노사 등 UCC 회원사, 분당서울대병원서 아이패드 애플용 및 마술공연 선보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목) 분당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서 장기입원 중인 어린 환우들을 위해 'UCC 재능·문화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기업간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 회원사인 KT노사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사, 분당서울대병원노사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KT노동조합은 소아병동 휴게실을 풍선 데코레이션으로 꾸미고 환우들을 초대해 마술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조합간부들과 경기동부 IT스포츠팀은 어린 환우들의 병실로 직접 찾아가, 아이패드를 활용한 ▲동화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KT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KT노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문화와 노동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숙 간호부장은 "어린이 날을 앞두고 환우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KT노사는 장기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 티셔츠를 선물했으며, 소아병동에는 도서와 키보드 2를 증정했다.

상반기 노사합동 실태조사

Ⅰ 위반사례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

KT노동조합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사간 노력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사례가 발견되어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아래 －

가. 조사기간 : 2012년 5월 7일~5월 12일

나. 조사기관 : 지방본부별 2~5개 지부

다. 조사내용 : 복무 및 노사합의사항 이행여부

위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례가 일부 특정기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전 기관에서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어, 추후 중앙본부에서 불시 조사를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시 나타난 위반사례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회사 측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지방본부에서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한 사안에 대해 자체조사 및 결과보고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 회의 개최

Ⅰ 그룹노조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당부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 :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는 5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도 그룹노조 중점사업계획 ▲그룹노조 사무원채용 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각 단사 노조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KT그룹노조는 ►그룹노조 연대강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대외활동 강화 ►그룹사 미조직 조직화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됐다.

정윤모 의장은 "단사별로 대의원대회 등 상반기에 집중된 각종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하고, "30일까지 진행하는 'KT그룹사 올레가족 캠페인'에도 그룹노조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KT trade union
6
7



2012년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개최

Ⅰ 5월 14~31일까지 원주서 총 390명 5기수로 나눠 각 2박 3일간 진행

노동조합은 오는 5월 14일(월)부터 31일(목)까지 원주 KT리더십아카데미에서 총 390명의 전국 조합간부를 5기수로 나누어, 각각 2박 3일씩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11대 집행부 첫 해 조합간부교육인 이번 행사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규약·단협 및 현안 공부 ▲트위터 배우기 ▲복지·후생 교육 ▲분반토론 ▲노동환경변화와 조합간부 리더십 ▲소통과 공감지수 높이기 ▲변화주도 셀프리더십 ▲산업안전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해하기 ▲노동가요 및 율동 배우기 ▲성희롱예방 교육 ▲다운플랜 안내 등의 프로그램으로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 후에는 KT단체협약이나 복지제도,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테스트를 실시, 퇴소식에서 우수 조합간부 표창도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과 관련 정윤모 위원장은 "노동환경도 통신시장도 수월치 않은 2012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믿고 허심탄회하게 다가가고 싶은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솔선수범하는 조합간부, 똑똑한 조합간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초선 조합간부가 103명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부 초기마다 반복되는 틀에 잡힌 교육형식을 과감히 지양했다"면서 "2박 3일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공부하고, 뜨거운 동지애를 얻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윤모 위원장, 현장순회 강행

Ⅰ "보여주기식 지양, 현장문제 해결과 지속적 안정화에 집중하겠다"

정윤모 위원장의 현장순회 활동이 강행되고 있다.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5월 15일(화) 본사지방본부 김신 위원장, 서부지방본부 문경노 위원장 등과 함께 안양·경기서부 NSC·강서무선·안산·동안안 지부를 방문해, 조합원 및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 위원장은 현재 원주에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2012년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소개하며, "조합간부의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로 조합원은 물론, KT 전 구성원들로부터 신뢰 받는 집행부를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1대 집행부 출범후 조직활동내역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조합은 보여주기식 단기활동을 철저히 지양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지속적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위원장은 "문제 발생 시, 지부장이나 조합 홈페이지 '열린 위원장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KTTU
hot news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 olleh 오토캠핑장

매주 캠핑을 하는 매니아층만 100만명이 넘는 시대다. 열혈 캠핑족은 불과 4~5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 여가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인식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주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이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심신의 여유를 찾고 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오토캠핑. 서울북부NSC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으로 KT 임직원 여러분을 초대한다.



오토캠핑장 신청 및 이용안내

olleh 오토캠핑장은 KT 임직원만 신청 가능(팀 워크샵 등 단체행사 가능)

- ◎ 캠프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101-4 KT화성송신소
- ◎ 입소 시간 : 입소 당일 13시
- ◎ 퇴소 시간 : 퇴소일 11시
- ◎ 화성 송신소 연락처 : 031-256-2856~7 (미 입소시 반드시 연락주세요)
- ◎ 입소 신청 및 이용시 불편사항 안내 : 서울북부NSC지부장 강재구 010-3452-0404
- ◎ 텐트 대여 : 텐트 1박당 1만원(4~5인용 대여), 개인 텐트 소지시 1박당 5천원
- ※ 1만원은 음식물, 일반 쓰레기 봉투 및 분리수거 비용과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하며, 캠프 종료후 정산내역을 공지합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유의사항

- ◎ KT 임직원에게 한하여 이용 가능, KT 직원을 동반하지 않은 외부인은 이용 불가(신분증 지참)
- ◎ 숙박 없이 당일 이용도 가능(숙박 이용객과 동일하게 입소확인서 작성 후 이용 가능)
- ◎ 콘도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방음이 되질 않으니, 소음으로 인해 주변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 화성송신소는 별도의 청소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쓰레기는 본인이 정리,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등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텐트 1동에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각 1개씩 지급됨)
- ◎ 야외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관계로 해충(모기, 나방, 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모기약, 기타 해충퇴치제 비치)
- ◎ 비상약품(연고, 밴드 등)은 청사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사용 가능
- ◎ 식기 세척대, 샤워장, 화장실 이용 등은 청사 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사용 안내문에 기록된 이용 수칙 준수
- ◎ 통신시설 보호 및 KT렌탈 보관 차량 도난방지를 위해 22:00시 이후에는 정문 출입을 통제 하오니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긴급상황 발생 시 개방)
- ◎ 안전을 위해 캠핑장, 청사 주변 및 지정 순찰로 이외의 모든 곳에 출입 제한 (단, 정보통신체험학습장은 송신소 직원 입회 하에 출입 가능함)



오토캠핑장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

화성송신소 Olleh 오토캠핑장에서 제공되는 사항

- ◎ 텐트 1동 지급(4인용), 개인텐트 추가 설치가능(1박당 5천원)
 - ◎ 싱크대 및 설거지 용품 제공
 - ◎ 남녀 샤워장 및 화장실 구비
 - ◎ 야외용 바비큐 그릴(고기 불판, 텐트당 1개 제공)
 - ◎ 전원 시설(텐트당 30m 연장 케이블 1개, 환절기 전기장판 등 사용가능)
 - ◎ 냉장고 2대(입소자 공동 사용)
 - ◎ 이동식 전기 청소기(입소자 공동 사용)
 - ◎ 침낭(입소자 요청시 텐트당 2개 제공)
 - ◎ 매트리스 텐트당 2개 제공
 - ◎ 의약품(모기향, 에프킬라, 지사제, 반창고 등)
 - ◎ 운동 용품 제공(배드민턴, 축구공 등)
 - ◎ 염소, 닭, 토끼 먹이주기 체험 가능
 - ◎ 정보통신체험학습관에서 가족영화 상영(송신소 사무실 031-356-2856~7)
- 화성송신소 Olleh 오토캠핑장에서 제공되는 사항
- ◎ 취사도구
 - ◎ 이불(요청시 텐트당 침낭 2개 제공)
 - ◎ 개인 위생용품 등

오토캠핑장 주변 관광지 및 맛집 안내

- ◎ 제부도 (거리 5km, 10분 소요) | 갯벌체험, 해수욕장, 바닷길 산책, 낙조감상, 조개구이 등
 - ◎ 백미리어촌체험마을 (거리 10km, 25분 소요) | 홈페이지 : www.sugbag.net (연락처 031-357-3379) 조개잡이, 굴따기, 갯벌 생태체험, 방둥어 낚시, 낙지잡이 등
 - ◎ 하내테마파크 (거리 10km, 15분 소요) | 홈페이지 : www.hane.co.kr (연락처 031-357-6151~3) 승마, 한지공예체험, 도자기공예체험 등
 - ◎ 궁평항 (거리 12km, 30분 소요) | 수산물 시장, 낚시, 낙조감상, 입하도 유람선 등
 - ◎ 화성 곤충농장(1인당 1만원, 10인 이상 단체만 가능) | 홈페이지 : www.minibugs.co.kr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2리 601번지

신(新)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가치

KT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돌아보면 비통신 분야 사업다각화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kt렌탈 등 비통신 분야 8개 신규 그룹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하였고, KT 별도 영업이익과의 합계에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어났다.

물론 현재 유무선 통신 서비스 매출이 가장 큰 수익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 기반의 기존 통신서비스는 범용화 되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이외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더구나 시장포화 상태인데다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도 거세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통신분야 사업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최 근 한 컨설팅 업체는 국내의 2만9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5년 동안 매출성장률과 주가상승률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모두 상위권에 속한 기업일수록 신사업 진출이 활발하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높은 성장을 하는 기업일수록 기존 사업과 신사업 매출 기여도가 엇비슷한 반면, 저성장 기업군은 기존 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즉 고성장 기업은 핵심 사업에서 이익을 내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특징을 보인 것이다. 이제 사업다각화가 좋은 것이냐, 집중화가 더 나은 것이냐의 가치 판단 고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디지털 컨버전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사업과 신사업, 관련 사업과 비관련 사업의 구분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업을 만든 힘

현 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도 3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핵심 기술은 진부해지고, 시장은 점점 포화상태로 변하며, 관련 산업자체가 쇠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끊임없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GE, 노키아, P&G, UPS 등 세계적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즐기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GE는 백열등과 라디오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 가전 회사였지만 금융 분야에 진출했는데가 하면, 지금은 세계적인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이기도 하다. 1991년 까지만 해도 펄프와 목재, 고무 등을 생산하는 제지회사였던 노키아는 초일류 IT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대표적 PC 생산 회사였던 IBM은 현재 세계 최고의 통합 솔루션 업체로 변신했다.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컨버전스형 신사업 개발

이 처럼 미래지향적 신사업 개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컨버전스’다. 사전적 의미로는 융합을 뜻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상이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발은 크게 ‘가치 추가형’과 ‘타산업 연계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치 추가형이란 기존 서비스에만 추가적인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한 경우다.

우리에게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진 롤스로이스의 경우 이제는 비행기 엔진으로 더 유명한 기업인데, 항공 엔진 판매와 함께 비행 중 기기의 작동 상태, 정비 요소 등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다음 공항에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다. 신뢰성 높은 엔진 그 자체와 더불어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비행 효율성’이라는 상위의 가치를 제공한 예다.

“ 기존 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통신분야 사업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에서는 기존 통신 사업 내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이 이것이다. 타산업 연계형은 기존 핵심 사업과 타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KT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비 보안 서비스, 모바일 신용카드결제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 전력/가스 및 다양한 원격 검침 및 제어서비스 등이 그 예다. 통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 경우다.

신사업 성공의 길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사업이 무조건 장밋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사례도 많지만 실패할 확률 역시 높다. 제지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로 변신한 노키아도 과거 소형 PC와 TV 제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었다. 디즈니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에서는 성공했으나, 인터넷 포털 사업에서는 실패했다. 신사업 진출 시, 적지 않은 기업이 외부보다는 내부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타성이 되어 조직 내부의 텃이 되었다. 렉서스라는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도요타 역시 과거에는 섬유방직 기계에서 출발해 1950년대 뒤늦게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후발주자였다. 도요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도 도요타 경영진들은 ‘타도 도요타’를 외쳤다. 도요타의 최대 적은 과거의 도요타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에 깃든 과거의 방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역량에 기반을 둔 다각화 - 코닥과 후지의 사례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과의 조화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코닥과 후지



의 사례다. 필름업계를 양분했던 코닥과 후지. 전자는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파산 보호 신청을 맞게 되었고, 후자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바로 ‘핵심 사업’에 집중한 코닥과 ‘핵심 역량’에 집중한 후지의 전략적 차이가 가져온 결과다. 코닥이 실패 한 것은 핵심사업인 필름사업을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핵심사업이었던 전통적 필름사업에 코닥이 한 세기 동안 이론 경영성과는 탁월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코닥은 자신들의 역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부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소비자 전지시장, 건강관리 비즈니스 분야 등 기존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을 확대했던 것이다. 기존 사업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없이, 외부 사업의 역량을 조화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려 했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후지는 핵심 사업인 필름 사업에서 쌓은 핵심역량은 포기 하지 않았다. 사업을 확대할 때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하였던 것이다. 사진 변색을 막는 항산화기술을 화장품 산업에 응용하였고, 과거 필름 분야에서 쌓은 기술을 LCD 패널에 사용되는 부품 개발에 적용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하면 특정 제품이나 사업 영역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환경의 변화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문어발’ 야마하의 120년 생존 비결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야마하(YAMAHA)는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등을 만드는 세계적 악기 브랜드다. 하지만 누군가는 야마하 하면 오토바이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른다. 1887년 창업을 한 야마하는 초창기 오르간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각종 악기 제작은 물론 A/V 기기, 모터사이클, 골프채, 가구, 반도체, 합금 소재산업 등 사업 다각화의 대표적 기업이다. 얼핏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종류의 제품을 동일한 브랜드 아래 만들지만 거의 각 부문 모두에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불사조 같은 기업이다.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한결같이 세계 최정상 위치를 지키는 비결은 의외로 평범하다. 바로 최고의 기술로 최상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야마하는 백년이 넘는 세월과 수많은 사업 진출에도 품질제일주의와 고객제일주의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게 지켜나갔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마저 없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다. 기업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성장의 페달을 멈추면 곧 넘어지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KT는 현재 유무선 네트워크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존의 핵심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행복한 장의사

KT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평창지부 김진국 지부장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자명한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득 돌아보면 어느새 종착점이 가까워진 그 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인생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산다. 결국 모두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숭고한 일일 것이다. 그 아름다운 일을 장의사의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봉사해 온 이가 있다. 망자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람. 강원지방본부 평창지부 김진국 지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KT trade union
14
15

장례절차가 전문화되고 현대화된 요즘 김진국 지부장(48세)의 손을 거친 고인들은 주로 소외된 시골 지역 사람들이다. 김 지부장의 고향은 평창군 미탄리 깊은 산골 마을. 1990년 33살의 다소 늦은 나이에 의정부전화국을 시작으로 KT와 첫 인연을 맺은 그는 고향이 좋아 지난 2001년 자원해 이곳 평창으로 왔다. 21명의 조합원들과 끈끈한 단결심으로 지부를 이끌어가는 그가 장례봉사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는 활동을 결심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의 아버지는 혜택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고향에서 손수 장례 일을 도맡아 하셨다.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보고 자란 김 지부장은 자연스럽게 장례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일을 점차 배우게 됐다. 하지만 장례봉사를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병상에 눕게된 아버지를 8년간 모시면서부터다.

“제대 후 24살 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병상의 아버

지를 모셔야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누군가의 부음을 들으면, 장례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장례봉사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인의 몸을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고, 머리를 단정히 빗기고, 곱게 화장을 해주는 일. 보통 사람은 꺼리기 마련인 이 일은 그래서 더욱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고 과제였다. 더구나 맛별이, 고령화 등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무의탁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 하는 가운데 노인문제는 무엇보다 그에게 심각한 현실로 인식되었다.

김 지부장은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이전에 아버지께 배웠던 장례 일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인 배움의 길로 들어설 것을 결심, 지난 2007년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에 입학하여 작년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좋아서 하는 일, 피곤한 줄 모릅니다 /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일도 수월해졌다.

“이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조 같은 전문장례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고인을 모시고 제 영안실 출입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례지도사들과 함께 연습을 합니다. 입관할 때 유족들이 참관하면 아무래도 저를 아는 지역 분들이라 저를 신뢰하고 많이 의지하시죠.”

김 지부장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 고인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항상 검정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장갑과 거즈 등 필요한 물품도 손수 장만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 일이 편했던 것만은 아니다.

고인의 시신을 처음 접했을 때는 한 달 동안 망자가 꿈에 보이면서 가위 놀림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나니 그런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다고.

“처음 시작했을때, 그러니깐 두 분의 고인을 모시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군요, 고인의 시신과 마주할 때는 일체 잡념 없이 ‘살아오면서 고생 많으셨다.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몸을 만져드리죠.”

생업과 병행하는 장례봉사가 만만치 않아 피곤할 법도 한데, 좋아서 하는 일이라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 설사 피곤하다 해도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해 찾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꼭 가야한다.

“자신의 부모라 해도 시신을 보면 만지기 싫고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꼭 가야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더 빨리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상조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제가 빨리 가는 것이 도리죠. 물론 상조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요.”

몸에 상처가 있는 고인을 모실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마에 큰 상처가 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고인을 잘 모셨다고 생각하고 장지까지 갔는데 탈관할 때 보니 봉했던 상처부위가 모두 풀렸더군요. 장례지도사도 없던 터라 혼자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전부 다시 했죠.”

지난 2009년, 김 지부장에게는 장례봉사의 계기를 다져주는 또 한 번 일생일대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김진국 지부장. 그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의사다.

사건이 있었다. 새벽녘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몰던 중 5m아래 언덕으로 추락하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겪은 것이다.

당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를 두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후 기적처럼 깨어나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그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 죽음은 자신의 경험처럼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었다. 이후부터 그는 장례봉사활동에 한층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에 대한 마음가짐 /

장례봉사는 이제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자 해답이다.

그는 고인을 뵈면 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특히 고향이고 지역민들이라보니 자연스레 고인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라, 그분들의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면 새삼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래서 그는 남에게 많이 주고 싶다고 했다.

“고인을 편히 모시고 나면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미약하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가장의 이런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던 아내도 지금은 남편의 일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고, 현재 고교 3학년인 그의 둘째 딸은 진로를 놓고 장차 아버지의 일을 돕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김 지부장은 만일 장례 봉사활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기술적인 배움보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먼저라고 당부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선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무서우면 고인의 몸을 정성을 다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인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분께 욕심을 가져봐야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게 떠나시게끔 해야 내 마음도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평생교육원, 대학, 종교단체 등 장례에 대한 배움의 길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고인을 모시는 마음가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기회가 된다면 조합원 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자신을 부르면 아는 만큼 돕겠다고. 또 무엇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KT라는 테두리 내에서라도 조합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베푸는 너그러움을 갖기를 소망했다.

2000년 개봉되었던 임창정 주연의 영화 ‘행복한 장의사’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김진국 지부장.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는 행복한 장의사다.



오감을 자극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色으로 치유하는 멀티테라피

현대의학은 날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과학화 될수록 생활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삶의 질은 궁핍해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려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멀티테라피에 대해 알아보자.

멀티테라피(Multi therapy)란?

멀티테라피는 동양의 오행사상과 한의학에 심리학을 접목해 그림·음악·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아트 케어(Art care)다. 멀티테라피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극복해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미술치료에서부터 음악치료(청각)·아로마테라피(후각)·식이요법(미각)·운동처방(촉각) 등 다양한 요소가 활용된다. 그 가운데서도 연상을 통한 드로잉(그림 그리기) 요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카타르시스와 함께 치유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멀티테라피는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던 인간 본연의 마음이 표출되면서 질병에 대한 자연치유능력과 면역력을 높인다. 개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치유방법으로 육체적 건강과 내면의 건강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멀티테라피, 그림 치유

치유그림은 단순한 붓 터치와 힘찬 에너지와 주목성 높은 색의 단순배색, 여백과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상 작용을 일으켜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성을 자극한다. 이 방법은 신체 각 부위의 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오색(木-靑, 火-赤, 土-黃, 金-白, 水-黑)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람의 오장육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 위의 오색을 바탕으로 음양의 원리를 통한 색, 점, 선, 면, 구도의 균형을 잡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림치유의 원리이다. 오장육부는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로 나뉘는데, 이 5개 요소는 각각 고유의 색을 갖고 있다. 색으로 풀어낸 오행은 파란색 계열의 목(木), 붉은색 계열의 화(火), 노란색 계열의 토(土), 흰색의 금(金), 검은색의 수(水)이다. 파란색 계열은 간장 기능과 관련 있다. 피로회복을 돕고 안정감을 준다. 피로를 느꼈을 때 푸른 바다를 보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붉은색 계열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므로 소화불량인 사람이나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적

I 치유그림

- ① 머리가 맑아지는 그림
- ② 가벼운 두통을 치유하는 그림
- ③ 초기 감기
- ④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림
- ⑤ 살 빠지는 그림
- ⑥ 두통 완화와 숙면에 좋은 그림
- ⑦ 만성위장질환에 좋은 그림
- ⑧ 신경성 소화불량, 변비, 설사에 좋은 그림
- ⑨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그림
- ⑩ 일반적인 관절염에 좋은 그림
- ⑪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출처 멀티테라피 협회 www.multitherapy.com

합하다. 흰색은 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성의 피부를 깨끗이 하고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 색이다. 검은색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감각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풍요롭게

우리 신체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작용해 대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멀티테라피는 색채와 그림을 활용해 심신의 안정과 활력을 만들어 준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그로 인한 삶의 부조화는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까지도 야기한다. 이러한 현대인의 삶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자아를 발견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랑,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년연장! 고령화 시대의 해법인가? 청년실업의 방조책인가?

정년연장 문제가 세계 노동계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장인의 은퇴를 늦추자는 주장은 자칫 모순처럼 들린다. ‘아들의 취업이나, 아버지의 일자리 유지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정년연장’ 문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정년연장,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조만간 노동력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표)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4~5년 이후부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60세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 은 60세인 반면 기업들은 55~57세로 제각각이다.

KT trade union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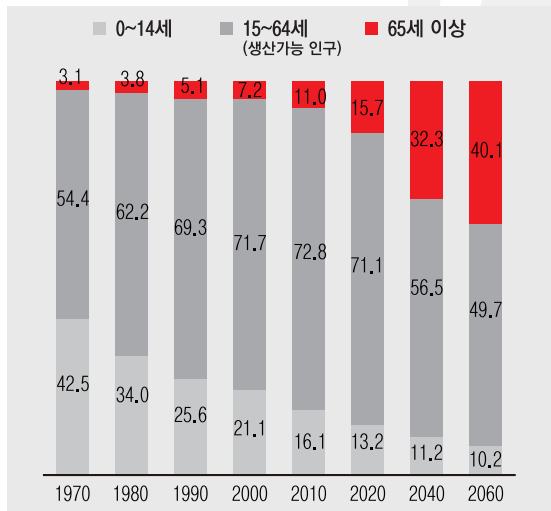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기업이 정년을 늦추도록 강제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년연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본격 논의하기는 시기상조 인데다,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는 현재의 연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펴기도 한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의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대립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0년 프랑스 정부가 법적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퇴직연금 수급연령도 62세 이후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 정면으로 대립했다. 프랑스 노동자의 정년연장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의 공적연금제도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에서 정년퇴직은 곧 연금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노동자는 60세까지 일하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은 공적연금이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수급 연금액의 비율)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42.1%다. 이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20년도 안 된 현재 시점에서 실 수령자를 기준으로 보면 12~2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프랑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65%에 이른다. 공적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20~30년 일찍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한 일본은 종전 이후 1차 베이비붐 기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1947~49년)의 본격 정년 도달을 앞두고 진작부터 고령자 재고용 유도정책을 폈다. 특히 2004년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 65살로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쌍의 부부(2)가 양쪽 노부모(4)와 자식 하나(1)를 부양하는 ‘4·2·1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도 정년연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정년 보장 대신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반면 유럽은 일정 연령까지는 법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제를 시행한다. 프랑스는 정년이 60세지만, 영국은 65세로 더 길다. 스웨덴은 선택적인 정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단위 : %)



※ 2020년 이후는 예상

자료 : 통계청

년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61세부터 퇴직 연금이 지급되고 65세가 넘는 저소득층과 무직자는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며, 또한 67세까지 일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65세 이상 국민이 인구의 18%를 넘고, 80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5%를 초과한 고령화 국가다.

◎ 지식근로자 양성 · 기업의 혁신 병행돼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숙련 노동력의 퇴진을 막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급여제도와 함께 직무 개발도 필요하다. 직장 내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해 지식근로자를 양성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고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더 큰 안목도 요구된다. 기업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한창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내보내면 고령자 노후복지를 사회로 떠넘기는 일밖에 안 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0세로 길어지는 지금, 고령자 정년연장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수세계박람회, 통신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순천NSC 여수운영팀 문언주 조합원

한반도 남쪽 꼬트머리에 자리한 작은 해안도시 여수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5월12일 개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때문이다.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연일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군기(?)가 바짝 든 얼굴로 촉각을 곤두세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세계박람회장의 통신을 주관하고 있는 ‘여수엑스포 KT관제센터’의 조합원들이다. 박람회 준비부터 폐막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문언주 조합원을 여수에서 만났다.

KT trade union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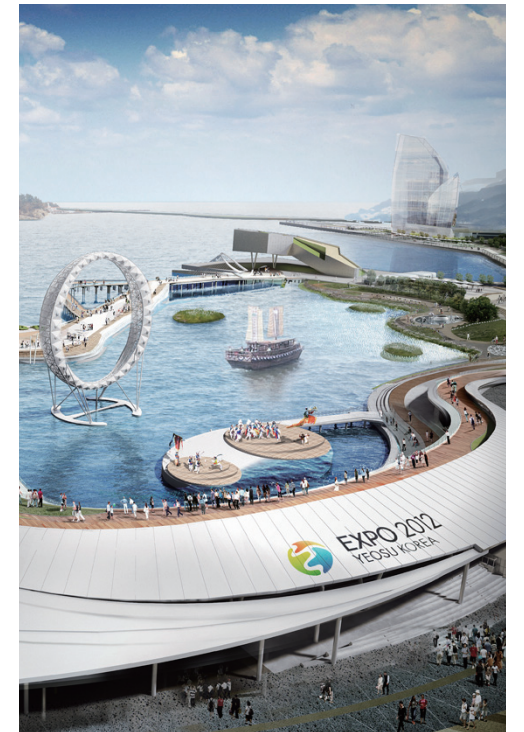
_여수와의 인연은 KT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개통한 완주-순천간고속도로와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 서울에서 일직선에 가깝게 내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내로 접어드니 저 멀리 온통 은빛으로 번쩍이는 박람회장이 눈에 들어온다. 여수를 방문한 것은 박람회가 시작하기 5일전, 박람회장 주변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철통같은 보안을 거쳐 순천NSC 여수운영팀의 문언주 조합원을 만난 곳은 박람회장 내에 자리한 여수엑스포 KT 관제센터에서다. 조붓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문 조합원의 눈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작은 실수라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4월말부터 5월초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요즘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국가를 넘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행사이니까요.”

1995년 입사한 문 조합원은 잠시 순천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여수에서만 16년째 일하고 있다. 처음엔 선로팀에서 근무하다가 전송팀으로 옮겨 약 10년간 고객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본래 고향은 광주이지만 이제 여수 사람이 다 되었다. 여수에서 배필을 만나 결혼도 했고, 바닷가도시의 여유와 낭만도 마음에 쏙 들었다. “충각 때는 광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수가 더 좋아요. 계장, 하모(갯장어), 서대회 등 먹을거리도 맛갈스럽고요.”

여수가 그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의 기초단체가 여수시로 통합되며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권의 핵심도시로 변모했고, 2008년에는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떠올랐다.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신항 일대의 변화는 천지개벽에 가깝다. 2년 전만 해도 한갓진 부둣가에 불과했던 이곳은 세계 104개국, 10개 국제기구, 20여 지자체, 국내 7개 대기업이 80개의 전시관을 마련한 첨단 엑스포타운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그 세계박람회장의 중심에 문 조합원은 서 있는 것이다.



| 순천NSC 여수운영팀 문언주 조합원

_엑스포 전담 TFT를 꾸리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KT가 박람회 주관 통신사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을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국제관에 자리한 이스라엘관에서 전용 회선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장비를 갖추고 공사장으로 들어서려는데 보안요원들이 제지하고 나섰다. 이스라엘대사관에서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재촉을 하는데 입장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겨우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 들어가니 이번에는 언어문제가 걸렸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현장에서 이스라엘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으로 통역을 해가며 작업을 했단다.

“저는 여수운용팀 소속이다 보니 엑스포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기 전에도 박람회장을 드나들 일이 많았어요. 3월 초에 이쪽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공사판이었어요. 비만 오면 뻔발이 되곤 했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통신실 한 번 출입하려면 절차가 정말 복잡했거든요. 조직위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전시관마다 공사업체가 달라서 전송 장비 설치를 조율하는 데도 꽤 애를 먹었어요.”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법인영업팀 간의 협의 끝에 KT가 박람회 주관 통신사로 선정된 것은 지난 4월 둘째 주 즈음이다. 박람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부랴부랴 엑스포 전담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순천 NSC와 호남단의 전송, 인터넷, 방송, 무선,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야근은 일상다반사였다.

“주관 통신사 선정이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TF팀이 보다 빨리 구성되었더라면 좀 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며칠 전에 잇몸이 아파서 팀장님께만 말씀드리



고 치과에 갔었는데, 치료를 받는 잠깐 동안 전화가 한 40통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엑스포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죠. 하하. 보통 때보다 업무강도가 약 3배가량 높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TF팀 모두가 고생이 많았죠.”

_고되지만 그만큼 자부심 느껴

그렇게 말을 건네는 문 조합원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살아 있었다. 많은 여수 시민들이 그러하듯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문 조합원을 비롯한 16명의 TF팀은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벤트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다는 중압감 그리고 단기간 내에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이겨냈다. 지난 5월5일 시행된 최종 리허설에 11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만 트래픽 폭주 등 통신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언제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작업은 가장 커다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이벤트를 함께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크고요. 한국인, 여수인, KT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난 5월12일 공식 개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8월12일까지 93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다양한 볼거리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지금도 엑스포 전담 TF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 조합원도 박람회장 어딘가를 바삐 뛰어다니고 있을 것만 같다. 세계 어느 도시의 그것보다 완벽한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말이다.



바다의 도시, 세계박람회의 도시 여수를 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맞이한 전남 여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다. 하지만 박람회장만 둘러보고 돌아온다면 큰 실수다. 그곳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나오고, 울창한 동백나무 사이로 탐스런 산책로가 뻗어나가며, 다도해국립공원의 아득한 풍경이 달는 발길마다 시원하게 펼쳐진다. 오죽 아름다우면 도시 이름이 '고운 물', 여수(麗水)이겠는가.



KT trade union

26

27



바다여행과 세계여행을 한번에!

지금 여수에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한창이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 신항 일대에서 펼쳐지는 것.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지만 여수엑스포 '4대 명물'로 꼽히는 아쿠아리움, 스카이다워, 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는 꼭 둘러봐야 한다.

아쿠아리움은 280종 3만4,000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전시관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다. 북극 출신의 흰고래 벨루가 3남매를 비롯해 바이칼 물범, 해룡 등 세계적인 희귀종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여수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며 여수의 상징으로 떠오른 빅오는 스펙터클하고 신비로운 영상으로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알파벳 'O'를 형상화한 것으로 가운데의 빈 공간으로 물과 빛, 레이저를 쏘아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는 드넓은 천장을 유영하는 '꿈꾸는 고래'를 만나게 된다. 그 엄청난 규모와 생생한 영상에 관람객들의 탄성은 끊이지 않는다. 시멘트 저장고에서 높이 55m의 멋진 하프 파이프 오르간으로 변신한 스카이가 타워에 올라 여수의 전경과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우조선해양로봇관,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높이 15m, 지름 30m)으로 블록버스터급 영상을 보여주는 한국관, 실제 빙벽과 얼음터널을 만나볼 수 있는 해양베스트관, 5대양 6대주 100여 국가의 문화를 한 데 모은 국제관 등이 필수코스다 꼽힌다.

동백의 숲을 거닐다 '오동도'

오동도는 여수여행의 일번지로 꼽힌다. 박람회장 오른쪽에 자리한 오동도는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양증맞은 동백열차가 여행객들을 태우고 768m의 방파제 길을 오가고 있지만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걷는 것도 좋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 만큼 이름난 오동도 방파제 길을 걷노라면 좌우로 드넓은 바다가 가없이 펼쳐진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다. 섬으로 들어서면 음악분수가 먼저 여행객을 반긴다. 웅장한 때로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차례로 스피커를 울리면, 분수가 리듬에 맞춰 높낮이와 각도를 달리하며 춤을 춘다. 따사로운 햇살과 훈훈한 해풍 그리고 시원한 분수는 기막힌 조화를 이루며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분수가 있는 중앙광장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섬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울울창창한 숲으로





의 산책이 시작된다. 오동도는 면적 12만7,000㎡의 작은 섬이지만 194종의 희귀수목들이 뽐뽐하게 들어서 있다. 섬 곳곳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길가로 멋들어진 휘어진 대나무 숲을 지나게 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랜 세월을 버텨온 해송과 후박나무 등을 만나게 된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백나무.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매끈하고 짙은 초록빛 잎사귀와 붉디붉은 꽃은 오동도의 자랑거리이다. 동백꽃은 11월부터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해 이듬해 3월 중순부터 절정에 이르러 4월까지 이어진다. 이 매혹적인 붉은 꽃의 꽃말은 ‘당신은 내 마음의 불꽃’이다. 그래서일까. 누군가의 뜨거운 마음처럼 손을 대면 데일 듯 붉고 또 붉다. 터널이라 불려도 좋을 울창한 숲길을 지나 오동도 언덕바지에 있는 등대에 오르는 것도 필수코스다. 시원하게 뚫린 창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는다. 박람회장을 비롯해 돌산도, 돌산대교 등이 한눈에 들어오고, 눈길을 돌리면 수많은 섬들이 울망줄망 바다를 수놓는다. 여수를 ‘미항여수’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경이다.

항구도시의 그윽함에 취하다

돌산공원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오동도 전망대 못지않다. 특히 어둑해질 무렵이 돌산공원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여수시내와 돌산도를 연결하는 돌산대교의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밝혀지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 헤드라이트를 켜 자동차와 조명을 밝힌 유람선들은 궤적을 그리며 제 갈 길을 가고, 바닷물에 드



KT trade union
28
29



리워진 빛의 그림자들은 바람에 출렁이며 오랫동안 발걸음을 붙든다. 돌산도 동남쪽 끝에 자리한 향일암 역시 다도해 풍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해를 향해 있는 암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일출을 바라보기에 좋아 해 뜰 무렵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매표소에서 20분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나뭇가지 사이로 수평선이 어른거리기 시작하고, 좁은 바위틈으로 난 길을 더듬어 가다보면 어느새 시야가 툭 트이며 대웅전 앞마당이 나타난다. 대웅전 뒤의 바위 사이를 비집고 조금만 올라가면 관음전이 있는데 이곳도 일출 조망 포인트로 꼽힌다. 향일암에는 7개의 동굴과 바위틈이 있어 이들을 모두 통과하면 소원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순신 장군과 여수와의 인연

남해안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남아 있지만 그와 여수와의 인연은 보다 각별하다. 여수 시내에 위치한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삼았던 진해루가 있던 자리에 세운 대규모 객사로 지금도 그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현재의 건물은 1716년(숙종 42년) 화재로 불탄 것을 1718년 전라좌수사 이제면이 이순신 장군 전사 120년이 되는 해를 기려서 다시 세운 것이다.

이층으로 된 누각인 망해루를 지나 야트막한 언덕 위로 올라서면 좌우로 55m에 이르는 건축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진남관이다. 거대한 원형기둥과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큼직한 주춧돌들이 당시 조선 수군의 위세를 짐작케 한다. 68개의 기둥들은 수령 300~400년 된 금강송을 사용한 것으로 가장 두꺼운 것의 둘레가 270cm에 달한다. 이 웅장한 기둥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다. 진남관을 등지고 서면 여수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명운을 근심하며 바라봤을 바로 그 바다에 지금은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다니 실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돌산도 해양수산과학관 뒤편의 해변 무술목도 그의 전술과 기백이 빛났던 장소이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군함 60여 척을 섬멸한 곳으로 지금은 몽돌들이 싱그러운 파도소리를 울리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향일암과 함께 일출 조망지로도 인기가 높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INFORMATION

찾아가기

경부고속국도 ▶ 천안·논산고속국도
▶ 호남고속국도 ▶ 익산포항고속국도
▶ 순천완주고속국도 ▶ 엑스포대로
▶ 여수

여수시청

• 061-690-2036
• www.yeosutransel.net

여수세계박람회

• 1577-2012
• www.expo2012.kr

미얀마의 봄은 시작되는가

아시아의 마지막 블루오션 ‘미얀마’는 지금 부활 중,
성장 잠재력 덕에 각국의 행보 이어져.

지난 4월 실시된 미얀마의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 45개 선거구 중 43석을 차지함으로써 승리를 거둔 바 있다. 1988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이래 15년간 구금생활을 하는 등, 재야에서만 활동하던 수치 여사가 드디어 제도권 정치에 처음 진출하게 된 것이다. 2007년에 일어난 국민의 봉기를 유혈진압하고, 불과 2년전 까지도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하면서 관제선거를 자행했던 것과는 달리, 미얀마가 부분적 이나마 자유선거를 허용하게 된 것은 현 대통령인 테인 세인의 역할이 크다.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이번 보궐선거에 테인 세인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등 국제선거감시단 입회를 허락해 투명한 선거를 치렀다. 테인 세인은 비록 군 출신이지만 군부 독재를 자행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얀마에 대한 꾸준한 국제적인 관심과 대응도 작금의 상황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미얀마 군사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해 경제제재로 대응하였으며, 건설적 참여라는 당근으로 미얀마에게 국제 행사의 의장국을 맡기는 등 개혁과 개방의 길로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인 대통령의 개방 의지와 수치 여사의 국회 입성으로 최근 미얀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22년 만에 주(駐)미얀마 대사를 지명하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가 완화됐고, 세계은행과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개시됐다. 일본은 35억 달러 상당의 외채를 탕감해주었다. 이에 질세라 인도,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각료들이 경쟁적으로 미얀마를 찾고 있다. 첩보물을 방불케 한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방문도 이어졌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가장 폐쇄적이고 탄압적인

KT trade union

30

31

국가로 분류됐었지만, 스스로 변화 의지를 선택하고 개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덕에 국제사회에도 미얀마가 세계 자본의 최고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치 여사는 “사람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조치들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게다가 이번에 야당의 승리가 된 선거는 내각진출 등으로 공식이 된 45석에 대한 보궐선거일 뿐이고, 아직은 군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정치범 석방, 민주적 선거제 도입 안착이 과연 지속가능할지도 선불리 예단할 순 없다. 그러나 고립과 폐쇄가 아닌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겠다는 세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크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군부 역시 현재의 자연스러운 개방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만한 엄청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은 순리대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은 지금까지 미얀마의 부분적 민주화 과정을 더욱 장려하고 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얀마는 아직 개발의 손때가 묻지 않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일지도 모른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물론,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 등 광물의 매장량도 상당히 자원의 보고라 불린다. 중국, 인도,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동북아, 서남아, 동남아를 잇는 30억 인구의 거점시장이 될 지리적 이점은 특히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가 남한의 6배이고 인구는 6천만명이나 되지만 이 중에 문맹률은 겨우 4%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렇게 값 싸지만 양질의 노동력이 많고, 풍부한 자원, 지리적 이점 등, 신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정부 또한 외국기업은 정부 소유 토지만 임차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 민간 용지를 빌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미얀마에 대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으로 양자 간 협력을 약속하기 이전인 4월에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현재 한국기업은 포스코, 대우목재 등 170여 사가 이미 미얀마에 진출해 있고, 특히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미얀마의 천연자원

의 잠재력과 지리적 입지를 고려해 가스전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미얀마의 정서도 우리로선 호재다. 미얀마는 과거 친(親)중국적인 정책을 펴왔지만, 지금은 정치적 종속 부담에서 벗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위시한 한국의 개발 경험과 산업화를 전수받고 싶어 하고, 국민은 한국 기업과 문화에 친근감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도 양질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거대 시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산업 기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당면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미얀마 유화 움직임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이다. 지난 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우선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분야로 금융과 통신, 관광, 교육 등을 꼽았다. 세계가 미얀마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제조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얀마 간 협력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길 기대해본다.



산재신청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관련 잘못된 상식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일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오해하기 쉬운 산재보험 상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문의 : 김배정 산업안전국장(031-727-2824)

기초 질환이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없다?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술, 담배, 비만과 같은 위험요인까지 갖고 있다면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기초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없이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간주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로 인해 기초질환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켰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초질환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기초질환 : 기왕증, 기존질환, 과거병력이라고 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은 회사가 처리해준다?

▶▶▶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보상청구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재해자 : 재해를 입은 사람.

회사의 도움 없이는 산재인정을 받을 수 없다?

▶▶▶ 과로성 질병은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재해현장에서 사건조사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일에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해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공단 측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산재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공단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협조가 없다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회사의 비협조 및 거부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을 여러 군데 옮기면 산재처리에 문제가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이 나기 이전에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야 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산재승인 후 전원(轉院)신청, 요양연기신청, 요양비청구신청 등을 통해 산재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각 병원마다 의사소견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 병원을 자주 옮기는 것과 해당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회사를 퇴직하면 더이상 산재보상이 안 된다?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로 승인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

▶▶▶ 과로성 재해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은 회사에 납부한 산재보험료로 운용되므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미납보험료가 없다면 직접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다만, 공단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전 3년간 지급된 산재보상금과 회사가 납부한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의 일정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산재보험료율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생각 버리기 연습

생각 버리기 연습

“풍족하려면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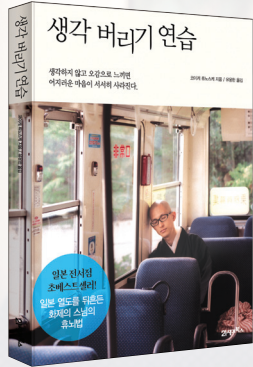
생각하지 않고 오감으로 느끼면

성인이라면 대부분 사랑과 실연으로 이어지는 아프면서도 아련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나? “나 버리고 가서 잘사나 보자”였나 아니면 “행복하기 바랄게”였나. “나 버리고 가서 잘사나 보자”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면 세월이 흘러 “행복하기 바랄게”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자면 “나 버리고 가서 잘사나 보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버리기 연습>의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는 ‘행복하기 바랄게’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노력이었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하기 바랄게’라며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미련을 남겨서 괴롭고 힘들게 만들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선한 양의 털을 쓰고 착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저자는 다시 “이런 위선에 대해 상대방은 ‘좋은 사람과 헤어지게 되다니 아쉽다. 괴롭다’라며 미련이 남아 더욱 가슴 아파하게 된다. 하지만 선한 양의 털을 쓴 이면에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길 바라는 만(慢)의 욕구가 감춰져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저자가 제시하는 원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

는 “서로가 편한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미련이 남도록 행동하거나 일부러 상대방에게 미움을 사 달아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다만 “서로가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대화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코이케 류노스케는 일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스님이다. 좌선과 명상 그리고 자신의 저서로 일본에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생각 버리기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버리고 사는 연습>과 같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생각 버리기 연습’은 일종의 명상서적이면서도 현명한 자기처세술을 조언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가 스님이고 불교의 경전들이 인용된다고 해서 종교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책도 아니다. 책의 내용도 고지식하거나 딱딱하지 않다. 부담 없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인생의 참 의미와 삶의 자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내용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KTTU QUIZ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개막일은 ‘○월 ○일’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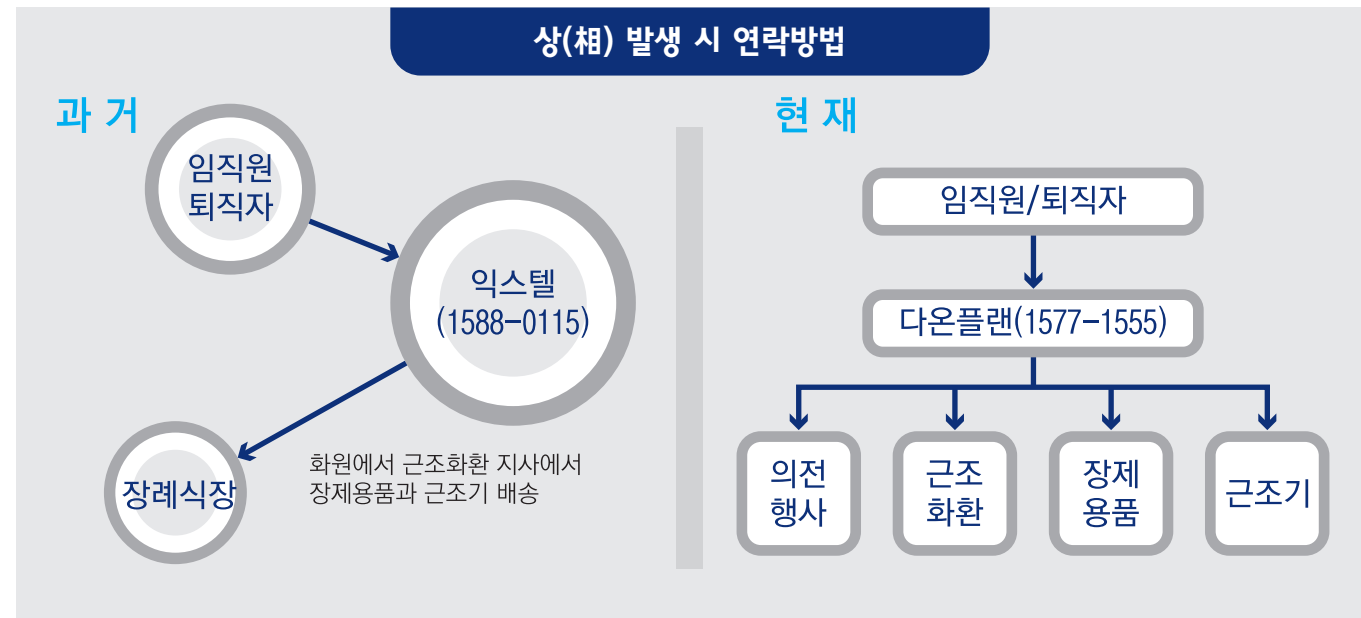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지난호 당첨자

임호진(충청무선네트워크 운영단), 이송찬(남부 마케팅단 안성지사), 황성재(대구무선네트워크운영단), 박준형(Product&Marketing 본부), 김법석(경영기획담당 전략기획실), 임지혜(IMO운영센터 정보보안팀), 이태희(KT충청고객센터), 박준형(상품혁신팀), 정경용(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 서윤수(대전마케팅단 둔산지사), 홍년기(KT텔레캅 노동조합), 여호동(SI부문 통합고객전략본부), 이윤호(개인P&M본부 데이터마케팅담당), 차태연(엔지니어링2팀), 옥재범(법인고객 TF), 문원일(경남무선마케팅단), 김중수(충청유선네트 집중운영센터), 심승복(특별기동팀), 홍현화(서울남부마케팅단), 안선환(수납지원센터)

(주)다운플랜 업무개선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주)다운플랜은 터무니 없는 장례비용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직접 책임 운영하는 상조회사입니다.



- 현 운용중인 다운1호(300만원)상품은 추후 인건비 및 물품비 인상으로 신규가입이 2012년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신입사원은 노사합의에 따라 입사후 3개월내 다운1호 가입이 가능하며, 동기간내 가입시 회사지원도 종전과 같습니다.
- 장제용품은 재직사우 400인용, 퇴직사우 300인용이 지급되며,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추가 할때는 처음 장제용품 신청시에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이중배송 불가)
참고 : 100인용 - 35,000원, 200인용 - 65,000원, 300인용 - 100,000원, 400인용 - 130,000원
- 다운플랜에 추가 또는 신규가입시 과거의 급여공제 방식은 불가하며, CMS 출금으로만 처리됩니다.
- 다운플랜 홈페이지(<http://www.daonplan.com>)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납부내역조회, 지인관리, 가입증서출력 등
※ 로그인 ID : 사원번호, P/W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지인관리에 등록된 지인은 상 발생후 회원님의 요구시 등록된 명단으로 무료로 부고장을 핸드폰 문자를 이용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다운플랜 서비스 이용후에는 납부된 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약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다운플랜 이용후 세액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나, 카드결제(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 약 3% 해당)는 불가합니다.
- 상 발생하면 즉시 다운플랜(1577-1555)의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추가 요금 요구시 패널티 제도가 있으니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다운플랜 담당(홍정성 T.010-9559-2778)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